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몽골사막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16주 】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0(통41).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 끝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연일 쏟아지는 가을비가 걱정스럽습니다. 비로 인해 도시사람들은 생활이 조금 불편한 정도이지만, 시골농부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빗물에 녹아내리는 농작물을 바라보며 마음도 함께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비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따사로운 가을햇살 비취 주십시오. 한 해의 수고가 열매로 익어가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작은 지위를 권력삼아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사회가 자신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특혜를 누리려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성실한 모습으로 소임을 다하는 이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사회가 정직과 신뢰를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시121:5,6 ..... 인도자  
 ♣ 교 독 문 ..... 72. 이사야58 ..... 다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I. 박소진 선생 II. 장영숙전도사  
 응 답 송 ..... 찬양대  
 찬 양 ..... 200(통235). 달고 오묘한 그 말씀 ..... 다함께  
 성경봉독 ..... I. 마6:25-34 ..... 박수민 학생  
 ..... II. 행2:43-47 ..... 곽상준 집사  
 찬 양 ..... 찬양대  
 말 씀 ..... I. 가만히 바라보라 ..... 손성현전도사  
 ..... II. 희년을 사는 사람들 ..... 김기석 목사

- 찬 양 ..... 475(통272). 인류는 하나 되게 ..... 다함께
- ♠ 봉 헌 .....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 담임목사
- 공동체 소식 .....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희년의 삶을 사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십시오.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십시오.
- 다 함 께 : 아멘. 다시 한 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게 살겠습니다. 함께 살아가라 명하신 이들과 기쁨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함께
-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집회
동교회	옴기 / 이성운 전도사
	기도 : 이건식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고정한 학생	이성익 학생
	김기석 목사	조병무 장로	송동준 집사

9월	영접위원	김인걸 권혁순 홍순구 박해경 안홍숙 권미정
	헌금위원	윤석철 안홍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사랑은 혼돈을 평화로 바꾼다 (4)

### 교감하기

교감은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요, 서로에게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감을 주고받는다. 교감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교감은 계속 성장하고 깊어질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소유하려함으로 그의 성장을 막는다면 서로에게 쓰라린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교감이란 양자 모두가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 열려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서로가 자신을 허용함으로써 우리는 해방감을 느낀다. 우리는 그 해방감을 통해 성장할 수 있으며 타자와 우주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지게 된다.

신뢰는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관대할 때, 우리는 돈을 주기도 하고, 시간을 내주기도 하고, 지식을 알려주기도 한다. 그러나 신뢰할 때, 우리 자신을 준다. 그에 의해 내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준다. 그렇다면 신뢰는 어느 순간에 발생하는 것일까? 그 순간은 비밀스러운 것인데 클라우디아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녀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였다. ...

교감이란 인간의 신비 중 가장 신비로운 것이다. 교감은 다른 이의 존재를 자신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요, 다른 이가 자신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려는 요청을 수락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감은 안정과 불안정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이기심, 다른 이를 지배하려는 욕구에 대항하여 싸울 때 교감할 수 있다.

다른 이에게 내 삶을 열어 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된다. 교감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 동시에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아름답다는 이유는 그것이 새로운 해방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일 필요가 없다. 함께하는 기쁨이 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가까이 있을 수 있다. 위험하다는 이유는 내면의 장벽을 낮춤으로 이전보다 쉽게 상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감하며 쉽게 상처받는다. 우리는 서로를 자유케 하는 교감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다.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

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요한1서 4:7)

## 용서하기

우리가 살펴볼 사랑의 마지막 양상은 용서이다. 클라우디아가 혼돈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체험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 어떤 인간도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받을 수는 없다. 자원봉사자들은 때때로 누적된 피로와 여러 이유로 클라우디아에게 짜증이나 화를 낼 수도 있다. 그런 행동들은 클라우디아의 연약한 마음에 상처를 남겼을 것이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안에는 깨어진 마음, 그늘진 곳, 영혼의 어두운 구석이 있다. 거기서 불안정한 모습들이 나온다. 우리는 계속해서 집중하거나, 사랑하거나, 평화로울 수는 없다. 라르슈의 자원봉사자들은 장애인들과 함께 살기 위해 왔다. 그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러 오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자원봉사자들은 “연약관계”라고 부르는 영속적인 결합의 약속을 하게 된다. 우리는 함께 살고 일하고 기도함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클라우디아는 이 공동체에 들어온 초기에 주로 화만 내며 지냈다. 그녀는 어떠한 관계도 거절한 채 자신의 고통 속에 갇혀 살았다. 철저히 자신의 필요와 욕구만을 따라 살았다. 그렇게 자신의 고통과 외로움 속으로 도망치려할 때 누군가 단호한 자세로 막아서는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다. 클라우디아는 자신을 존중해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주려는 사람만을 그런 사람으로 인정했다. 근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권위는 자유를 억압하고 파괴할 뿐이다. 신뢰에 바탕을 둔 권위만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존재를 성숙시킬 수 있다.

클라우디아는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자신의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오기 전 수년 동안 시설에서 지내면 생긴 내면의 우울함과 분노, 상처를 인정해야만 했다. 그녀가 그것을 뭐라 명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워야만 했다. 나디옌은 클라우디아에게 사회법보다 높고 근본적인 법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었다. 그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요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며, 모든 이의 가슴 속에 내재된 것이다. 우리는 그 법을 통해 모든 생명이 성숙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과 모든 인간이 어둠과 혼돈에서 벗어나 빛과 새로운 사랑의 질서 속에 살아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 장 바니에, 『인간 되기』 중에서

## 둘이는 똑같이

신발주머니에 들어간 신발은  
미안했어요.  
흠이 묻어서……

“괜찮아.  
주인을 위해 일했잖아?”  
신발주머니는 신발을  
꼭 안아 주었어요.

둘이는 똑같이  
흠투성이가 되었어요.

이혜영 · 아동문학가

작은 흠 하나 때문에 그 존재를 내친 적은 없었는가  
얼굴에 숯 검댕이 함께 묻히고 허허거릴 여유는 없었는가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 헌금영수기 ◇

### 십일조헌금:

조병무 송양진 김순복 전영웅 김용길 최영혜 김정길 최속화 김희진  
 박홍재 문복순 최현선 박규석 박경선 박애순 백묘현 안정숙 안종일  
 정현주 전세종 김정민 허신열 박시내 김성한 조영순 강순배 박용진  
 김용원 이재문 김민화 김수진 배제선 최종훈 김금하 박소진 김재흥  
 최희영 무명2

### 월정헌금:

고속이 김순자 김영순 김용태 박정숙 김종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문금석 배부례 전영자 정두리 조순덕 하현철 최성애 이광섭 최윤희  
 박상규 김현주 박인혁 이은정 김기성 조병주 박은정 송동준 김진경  
 정연희 배연선 이재훈 한정애 김명순 이교영 무명

### 감사헌금:

전영규 김경수 전세종 김정민 전성오 이순정 김순복 김용길 최영혜  
 유은정 최종훈 김금하 이수정 배재경 전 용 이지훈 김진영 변재민  
 이소혜 무명2

녹색꿈헌금: 최경미 문복순 이승현 황선희 한상익 정영선

생일헌금: 권혁순 박혜경 김대규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에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장혜숙	장혜숙
베들레헬	노순옥	정경례	노순옥	서정순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최경미	임정자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문영혜	박경선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최희영	진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백묘현	문복순
시온	박효선	허정윤	홍복선	김정애
엠마오	최속화	권미정	최희정	최희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이순정	오복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이형숙	구성실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박찬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백혜숙	정영선
갈라디아	유경순	김수진	김수진	유경순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이영란	배삼순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최영혜	박혜경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희년실천주일** : 매년 추석 연휴 전 주일은 희년실천주일로 지킵니다. 희년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2. **동호회** : 오늘 오후집회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3. **사과** : 사과분양 신청하셨던 분들은 오늘 생협에서 사과를 받아 가지길 바랍니다.
4. **신앙실천** : 가을이 가까이 왔습니다. 옷가지를 정리하면서, 오랫동안 입지 않은 옷가지는 다른 이들이 입을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 식당 봉사 : 다메섹 속 (다음 주 : 예루살렘 속)

\* 설거지 봉사 : 권혁신 방수진 이건설 (다음 주 : 남창모 전충길 김세진)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